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렛거스 구역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렷거스 구역

렛거스 구역은 참된 신앙심을 바탕으로 에디슨 한인 성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구역입니다.

우리 구역의 자랑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당 어른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바르게 하느님의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가정을 이루고자 항상 노력하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우리 구역원들은 다른 어떤 구역보다 결속력이 강해 성당 봉사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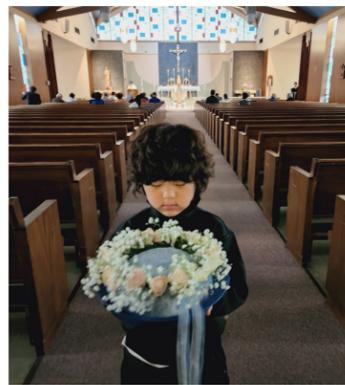
지금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렷거스 구역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굶은 일도 마다 않고, 봉사에 앞장서는 구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첫영성체 (6/6/2021): 한울리비아, 이동윤(프란치스코), 나제이(퀸틸라), 제니퍼 존스, 유정원(라파엘)



최윤진(아나스타샤)



한가브리엘



이소윤(글라라)



윤조엘



윤리아나/윤조엘



한지호



유시원(레오)/유정원(라파엘)



최윤진/나제이/한울리비아/한가브리엘

렛거스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 김종필(요한비안네), 최정(마리아), 김승수(안드레아)
- 나채국(제노), 김민주(이스베리가), 나제이(퀸틸라)
- 유관우(미카엘), 임혜인(로사), 유정원(라파엘), 유시원(레오)
- 윤준희(안드레아), 구윤미(올리아), 윤리아나, 윤조엘
- 이광재(시몬), 소나영(안나), 이동윤(프란치스코), 이소윤(글라라)
- 이성현(필립보네리), 노은정(글라라), 이하민
- 최두철(요셉), 임선미(세실리아), 최윤진(아나스타샤)
- 한정훈(요한), 강민선(베로니카), 한지호
- 한철희(필립보), 한지혜(크리스티나), 한울리비아, 한가브리엘
- 가레스 존스, 김세현(스텔라), 로버트 존스, 토머스 존스, 제니퍼 존스

연중 제19주일

2022년 8월 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요일
(8:30AM~1: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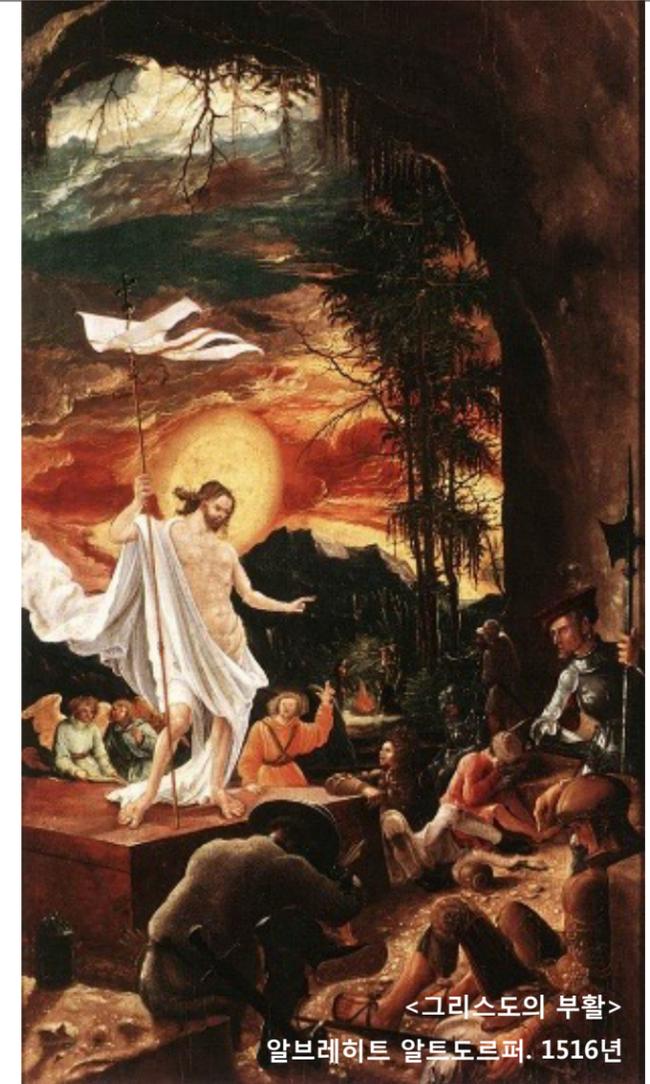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그리스도의 부활>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1516년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지혜서18,6-9
- # 화답송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제2독서 히브리서11,1-2,8-19
- # 복음 환호송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복음 루카 12,32-48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 성가번호 입당 21 봉헌 210 성체 169 파견 77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네딕도) - 장수지(아폴로니아)
- 오경선(원선시오) - 장수지(아폴로니아)
- 오용덕(헨리코) - 장수지(아폴로니아)
- 정영철(프란치스코) - 장수지(아폴로니아),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순옥(올리아) - 황태진(필립보)
- 강해성(야고보) - 가족
- 김경모(로렌조) - 성낙순(미카엘라)
- 김민욱(어거스틴) - 성낙순(미카엘라)
- 김정숙(엘리자벳) 가정 - 먼로구역
- 김폴 - 김종화(아가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27명).....\$1,371
- 교무금.....\$1,560
- 곽신규(7-8) 서경호(9-10) 백상현(8)
- 최영찬(7-8) 서정근(7-8) 이대우(7-8)
- 서영원(7-8)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약기보내기 운동 2022 콘서트

- 미국 살레시오회 주관으로 선교지에 약기를 직접 보내거나 약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선교지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빛을 밝혀주는 송고한 애덕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8월 13일 오후 6시
- 장소: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Hall
174 Filors Lane, Story Point, NY 10980
- 문의: 이상익 요한(201-341-4949)
구분주 미카엘(917-248-5977)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및 장소: 8월 15일(월) 오전 9시, 경당
- 올해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 아닙니다.

2차 헌금

- 8월 14일: 유틸리티
- 8월 28일 : 교구청 주관 선교 후원금 모금(Missionary CO-OP)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8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하계 기간 (7-8월)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안내

- 업무시간 : 오전 8:30 - 오후 1:30 (화-목)
- 업무시간 외 용무는 사무장 개인 연락처(732-258-5998)로 연락바랍니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노스브런스릭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7일(주일)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쿠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메타천 교구청 주관 선교 후원금 모금

- 인도 건터 교구청 소속 Rajesh Kumar Nettam 신부님이 8월 20일 (토) ~ 21일(일)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해 본당을 방문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선생님 모집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 (K~8 grade)와 유스그룹 (9-12 grade)를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주일학교 학생 모집

- 개강: 9월 18일
- 접수: 8월 7일부터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지혜서18,6-9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히브리서 11,1-2.8-19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분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분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2,32-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쏘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불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불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